

호남대 쌍촌캠퍼스 아파트 개발 협의 개시

광주시, 협상조정위 구성 공공기여 규모 결정...10월까지 완료 후 용도 변경 추진

광주시가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승인한 호남대 쌍촌캠퍼스 개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최근 협상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협상조정위원회는 쌍촌캠퍼스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데 따른 수익 중 공공기여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시는 11일 “호남대 쌍촌캠퍼스의 개발 방안과 공공기여 등을 협의하는 조정위원회를 시민사회단체 등 공공부문 3명, 호남대 추천 인사 3명, 도시계획·교통 관련 전문가 5명 등 11명으로 구성해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공을 맡을 건설업체는 아직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는 오는 10월

에 나올 협상 결과를 반영해 용도지역 변경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1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학교법인 성인학원 이사장이 제출한 ‘호남대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대상지 선정을 위한 개발계획 자문(안)’을 심의, 지역 최초로 ‘공공기여제’ 등을 조건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공공기여제는 공원과 도로 등 지자체가 필요한 공공시설을 협상을 통해 기여받고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다. 현재 학교부지를 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부지로 변경해주면서 그 조건으로 개발 수익의 일부를 공공에 내놓도록 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3월 1일 지역사회 발전에 파급영향이 있는 대규모 유휴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을 민관 사전협상을 통해 공공성 높게 개발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제도화한 바 있다.

학교법인 성인학원 이사장은 서구 쌍촌동 600번지 일원 호남대 쌍촌캠퍼스 6만 4116㎡에 아파트 18~27층 13개동 995세대를 짓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용적률(건축물 총면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은 219.11%,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은 14.

43%였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에 대해 주변 건축물을 감안해 평균층수를 18층으로 할 것과 용적률을 타 학교 이전지 사례를 참조해 200% 내외로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부지의 가치성, 아파트 개발 이익을 고려한 현실적인 지가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과 공공기여 기준을 20% 내외로 할 것을 협상 전제조건으로 했다. 성인학원 측은 당초 공공기여 규모를 부지면적의 10%로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광주에서 첫 사례인만큼 앞으로 협상대상자인 호남대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바람직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한·중·일 정상회담 열린다

靑 “내달 일본서 개최”

2015년 이후 중단됐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다음 달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1일 확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고노 다로 일본 외무대신 접견 결과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다음 달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관련, 그간 3국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위해 일본 정부가 기울여 온 노력을 평가하며 지지해 왔다고 하고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간 청와대는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5월 초로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날짜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확정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 교토통신도 한중일이 5월 전반 도쿄 정상회담 개최를 큰 틀에서 합의 했으며 ‘8~9일 이틀간을 축으로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개최한다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확정됨에 따라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된다. 한국 대통령의 방일은 2011년 12월 이명박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한중일이 순차적으로 여는 3국 정상회담은 2015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뒤 중국이 2016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뒤 3국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위해 일본 정부와 관련해 “5월 초로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날짜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확정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이번 달 1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5월 말 또는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가속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한미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이 역시 5월 초·중순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남북정상회담 준비 순조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5차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 “박근혜 ‘삼성 뇌물 무죄’ 양형 부당” 항소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 가운데 특히 ‘삼성 뇌물’ 중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제3자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다뤄보겠다는 취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쟁점은 대법원에 올라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등 여타 재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검찰의 항소로 박 전 대통령 측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일단 이번 사건 재판은 고별에서 이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그에 따른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운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18가지 혐의 중 16개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결론 내렸지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률상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하는데, 삼성과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다시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등을 쟁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1심에서도 같은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항소한 바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같은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 은 뒤 상고했다. /*연합뉴스

도심 속 생태여행 떠나요

광주시 14일부터 ‘感·自· 감성여행’ 푸른길·광주호·장록습지·중앙공원 등

도심에서도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푸른길, 장록습지, 중앙공원, 한새농, 광주호 등 광주 대표 생태자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1일 “도심 주변의 자연자원을 활용하고 생태학습 공간을 연계해 다양한 생태체험을 즐기는 ‘감·자(感·自) 자연으로 떠나는 감성여행’을 오는 14일부터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감·자(感·自) 자연으로 떠나는 감성여행’은 무등산국립공원과 그 자락에 자

리한 평촌마을, 영산강과 황룡강이 흐르는 광주의 생태·역사·문화자원을 여행과 엮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도심권 생태체험관광’ 프로그램으로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시는 권역별 지역특성에 맞춰 ▲푸른길로 광주도심 트레킹을 테마로 한 ‘푸른길권’ ▲미래를 품은 도시숲 이야기 ‘중앙공원권’ ▲황룡강이 숨 쉬는 습지로 가자 ‘장록습지권’ ▲마을숲을 잇는 개구리는 ‘한새농권’ ▲바람도 구름도 쉬쉬하는 평촌마을, 그림 속 풍경 호

수생태원 ‘광주호권’ 등 5개의 테마로 구성했다.

올해는 환경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후보지인 ‘황룡강 장록습지’가 추가돼 습지생태계 보전과 함께 생태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은 광주광역시 속가 능 발전협의 회(062-613-4175/www.greengi21.or.kr)에 신청하면 운영 일정에 따라 생태관광 체험을 할 수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어버이날 안 쉽다

임시공휴일 지정 않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어버이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년 이후에는 인사혁신처의 검토 결과 등을 받아본 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올해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쉬게 돼 아이들을 돌보는 데 지장이 생길 우려가 컸다”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임야삽니다!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010-6838-123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펜션·가든 부지 매매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주인 직매
010-3799-3830

혈당조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시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 혈당조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질이 잘 안되시는 분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혈당조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질이 잘 안되시는 분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010-3598-7080

풋살구장 매매(급매)

시청에서 9분, 전남대에서 14분!!

상황중 즉시이용 가능(최근완공)

풋살구장4면+사무실+손님휴게실+사위장+화장실

토지 약600평(구장 1천평, 주차장 600평)
토지 임대(매매안함)
(CCTV 등 시설 및 관련 물품포함)

◆ 시세가 3억 3천 ◆
매매가 2억 6천 5백

구장운영자 010-6603-0680